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1. 8. 11 (수)

meritz Strategy Daily

전략 공감 2.0

Strategy Idea

미국 재고 사이클: 향후 성장률 개선의 동인

오늘의 차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고용여건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유

칼럼의 재해석

컨테이너시장 붐, 언제까지 지속될까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글로벌 투자전략 - 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미국 재고 사이클: 향후 성장률 개선의 동인

- ✓ 올해 상반기에 이례적인 재고소진 발생하며 미국 GDP 성장률 기대 하회 주요 요인으로 작용. 원인은 공급망 차질로 심화된 초과수요에 기업들이 재고소진으로 대응한 때문
- ✓ 비슷한 배경의 2003년과 2010년 사례에서는 재고 restocking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성장률도 확대되었음
- ✓ 현재는 재고 소진 규모가 이전 사례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 과거보다 재고 restocking 수요가 커지면서 경기확장 가속화/연장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 주가에는 긍정적

경기순환에서 재고변동의 중요성

재고는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재고(Inventory)'는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핵심 기재 중 하나다. Romer(2017)에서는 미국 경제에서 재고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경기 침체에 성장률 변화의 40%가 재고투자 변동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3년 주기의 경기 소순환 사이클(키친 파동)은 이러한 재고투자의 주기적인 변동성을 근거로 설명하는 경기순환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경제지표에서
세부항목으로 '재고'를 집계함

그렇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들에서 세부항목으로 재고에 대한 조사 항목을 포함한다. 경기를 판단하는 핵심 통계인 GDP에서는 투자 항목 중에 재고투자 변동을 따로 집계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 경제지표 중 하나인 ISM 제조업지수에서도 헤드라인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으로 재고지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제조업 기업들의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고객 재고지수(Customers' inventory index)까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재고투자는 일반적으로
경기 순행적 성격을 가짐

일반적으로 재고는 확장국면에 증가하고 수축국면에 감소하는 경기순행적 성격을 갖는다. 이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재고 소진을 기피하는 경향에 기인한다. 기업들은 재고가 없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 판매를 못한 손해뿐만 아니라 점유율 하락으로 경쟁에서도 밀린다. 또한 여기서 나타나는 손해가 재고 축적에 따른 관리 비용보다 크다고 느낀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장국면에서는 재고를 늘리고 수축국면에서는 재고를 줄인다.

Restocking으로 경기 확장 장기화: 과거 사례 비교

올해 상반기 미국 GDP 중
재고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성장을 기대 하회 요인으로 작용

올해 상반기 미국 GDP는 경기 확장국면에서 재고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 미국 1, 2분기 실질 GDP가 각각 전분기대비 연율 기
준 6.3%, 6.5% 성장했는데, 각 분기에 재고투자가 883억, 1,659억 달러(SAAR
기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를 기록했다(-2.6%p, -1.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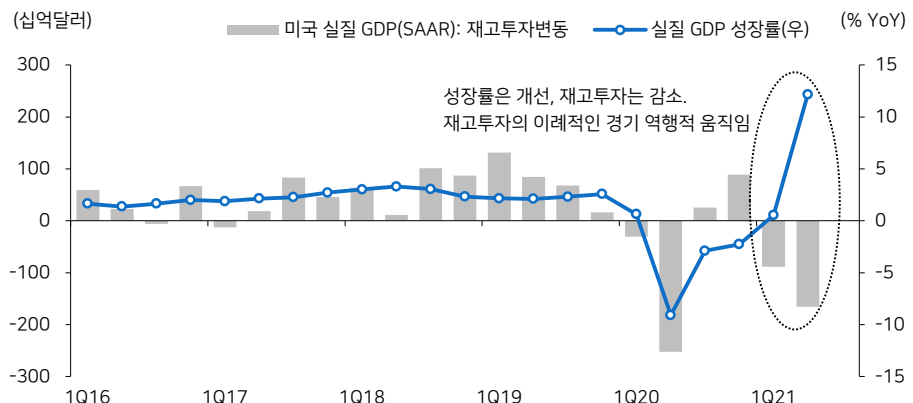
현재 미국은 노동, 원자재, 공급망
문제로 겪는 생산차질에 재고소진
으로 대응하고 있음

미국 7월 ISM 제조업 서베이에 나타나듯이, 지금 미국의 수요는 강한 반면, 노동
력, 원자재, 공급망 문제로 나타나는 생산차질이 재고 소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쇼티지 발생/재고소진으로 대응 → 쇼티지 해소와 생산 회복 →
재고 restocking 순으로 회복 과정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재고 restocking은 올해말-내년초
사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

우리는 재고 restocking 개시 시점이 쇼티지가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일 것으로 본다. 이러한 restocking 수요는 경기 확장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과 비슷한 재고소진 패턴이 나
타났던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1 미국 실질 GDP 성장률과 재고투자변동



자료: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미국 7월 ISM 제조업 업종별 코멘트

업종	내용
컴퓨터/전자	강한 수요환경 지속, 위축될 기미는 보이지 않음. 원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리드 타임 증가 지속. 이러한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음
화학	공급망이 매우 천천히 회복 중. (이러한 흐름이)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천천히 확산되고 있음
운송장비	판매 호조 이어지나, 칩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재고부족. 칩 공급망 부담 줄이고자 일부 생산 라인을 가동하지 않고 있음
식품/담배	운송료 상승 등에 따른 가격 상승 문제 지속. 고객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공장 가동률은 최대치 기록 중
금속 가공	신규 주문 확대에 따른 강한 업황. 생산직과 사무직 채용에 계속 어려움 겪고 있음. 원자재 공급 부족, 리드타임 길어지고 있음
가구	예약 건수 증가, 경기회복 지속. 여전히 인플레이션(원자재, 노동력, 운송)과 생산여력 문제 지속
비철금속	매출은 작년을 크게 상회했지만, 불가피한 물류, 인력 부족 문제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2022년까지 이런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기계	공급망은 매우 어려운 상황. 몇 달 전에 주문을 해야 제 때 줄을 설 수 있음
잡화	새로운 주문으로 매우 바빠. 원자재 가격 계속 상승, 공급 지연. 적절한 노동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경쟁 발생
1차 금속	사업 환경 강세 지속. 인력 부족으로 주문 요구량의 75%만 채울 수 있음

자료: US IS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첫번째 사례: 2001년 경기침체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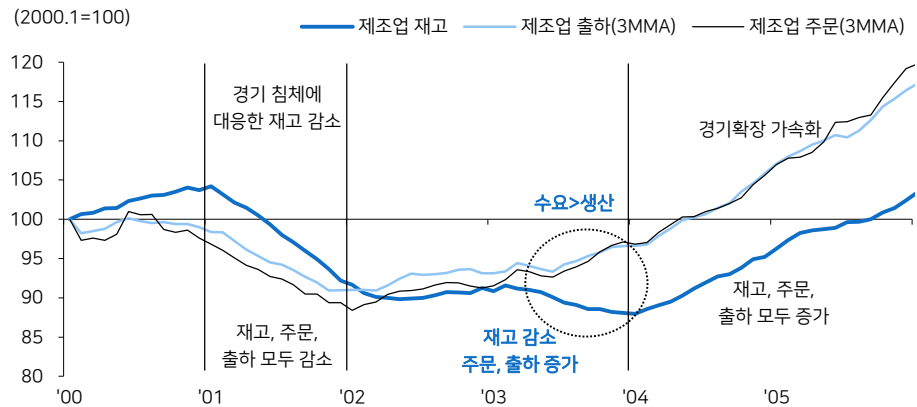
'03년 5월~'04년 1월까지 제조업
수요는 증가하는데 재고는 감소

2000년대 초반 시기에 미국 제조업 재고 금액 추이를 보면, 침체 초기에는 경기 변동에 순행하여 재고 감소가 나타났다. 경기 저점이었던 2001년 4분기 이후 주문과 출하로 나타나는 수요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재고도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그런데 제조업 주문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2003년 5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재고가 감소하는 경기 역행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재고소진으로 초과수요에 대응했던 현재 모습과 유사하다.

재고 restocking 이후 경기 확장
장기화, 경제 성장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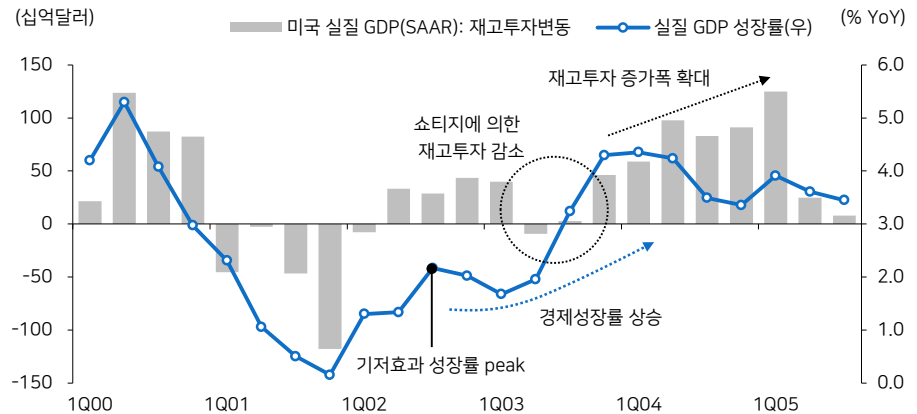
그 결과 경기 확장국면임에도 2003년 2분기와 3분기 GDP 항목 내 재고투자가 감소했다. 반면, 재고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후에는 소진된 재고를 충당하기 위한 재고투자 증가폭이 2003년 4분기부터 6개 분기 동안 확대되었다. 재고투자 증가는 기저효과가 해소된 2003년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둔화가 아닌, 3% 이상의 성장률 개선을 장기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그림2 IT버블 이후 회복기: 미국 제조업 재고, 출하, 주문 금액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IT버블 이후 회복기: 미국 실질 GDP 성장률과 재고투자변동



자료: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두번째 사례: 금융위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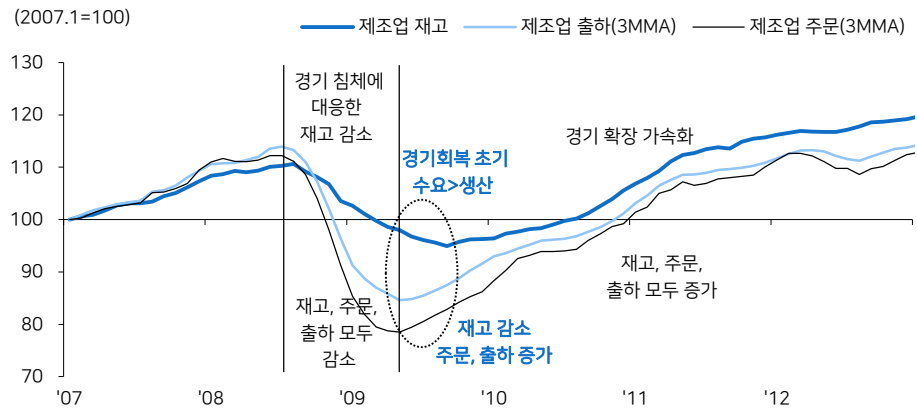
'09년 4월~9월까지 제조업 수요
증가하는데 재고는 감소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들어선 2003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제조업은 완만한 우상향 사이클이 지속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2008년 4분기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재고조정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조업 재고, 주문, 출하액 모두 감소했다. 그런데 회복이 시작된 2009년 4월 이후부터 9월까지 재고는 줄고 주문은 늘면서 두 지표의 방향이 엇갈렸다.

재고소진 이후 재고투자 확대
장기화, 성장률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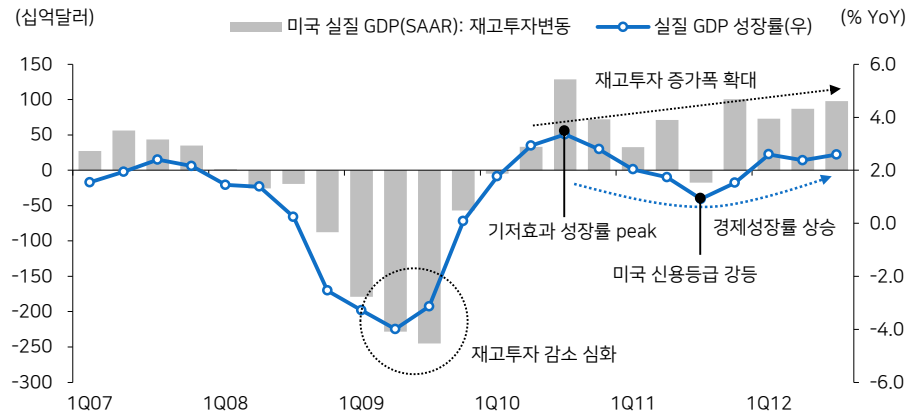
그 이유는 침체 기간 동안 위축되었던 생산능력이 수요증가에 대응하지 못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3Q09에 성장률은 개선(-4.0% → -3.1%)되었지만, 재고투자는 오히려 감소폭이 확대(2,283억 달러 → 2,451억 달러)되었다. 이후에는 재고 restocking 수요가 나타나면서 2014년까지 재고투자가 추세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성장률도 재고투자에 힘입어 개선되었다.

그림4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 미국 제조업 재고, 출하, 주문 금액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 미국 실질 GDP 성장률과 재고투자변동



자료: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VID 이후 이례적인 규모의 재고소진 발생

COVID 충격 이후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상당한 재고소진 발생

COVID 리세션은 역사상 가장 짧은 경기침체 기간으로 기록되었고, 뒤이은 경기 회복은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른 수요증가가 쇼티지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부터인데, 올해 1, 2분기는 이러한 쇼티지 영향에 온전히 노출되었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쇼티지의 강도는 GDP의 재고투자 감소 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1, 2분기 재고투자 감소 규모(2012년 실질, 연물화 기준)는 2,541억 달러다. 초과수요로 재고투자가 감소했던 2003년 2, 3분기(-64억 달러)보다 훨씬 크고, 극심했던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재고조정 수요가 겹쳤던 2009년 3분기(2,451억 달러)보다도 크다.

소매업체 재고/매출 비율 1.09로
역사적 저점 기록

재고 소진의 강도는 도/소매 업체들의 재고/매출 비율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21년 5월 미국 소매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은 1.09배로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저치이며, 전체 평균(1.4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도매업체들의 2021년 5월 재고/매출 비율도 1.23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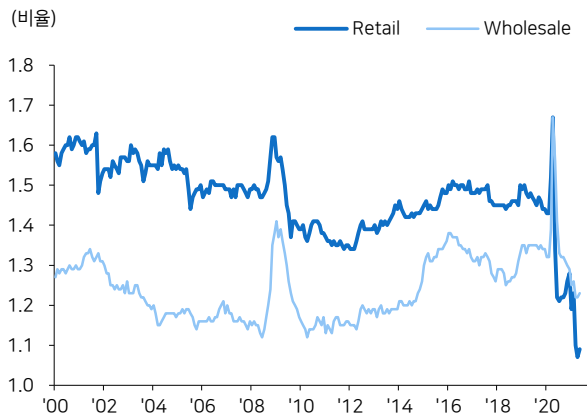
최종 수요 영향을 직접 받는
소매업체 재고소진이 두드러짐

특징적인 것은 이번 회복기에서 제조업체 혹은 중간업체보다 소매업체 중심으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었다는 점이다. 제조업체들의 재고를 조사하는 재고지수(Inventory index)의 하락폭은 크지 않은 반면(7월 48.9), 제조업체들의 고객사 재고를 조사하는 고객재고 지수가 7월에 역사적 저점(25.0)을 경신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강한 최종수요에 직면하고 있는 소매업체들이 재고소진으로 판매대응을 해왔는데, 생산자 혹은 중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매업체 중심의 재고 감소가
부각된 이유는 공급망 문제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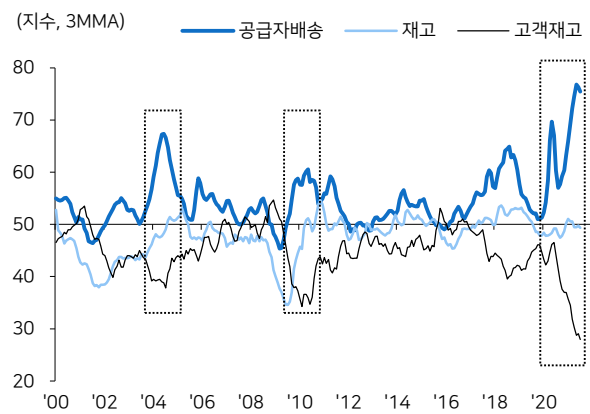
그 배경에는 강도 높은 공급망 차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SM 제조업 공급자배송시간지수와 고객재고 지수가 통상적으로 역행하는 것(그림 7)에서 유추할 수 있다. 올해 5월 ISM 공급자 배송시간지수(78.8)는 COVID가 부각되었던 작년 4월을 제외하고 197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기업들이 약 40년간 겪어보지 못한 공급망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6 미국 제조업 재고/매출 비율: 도매업과 소매업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미국 ISM 제조업: 공급자 배송, 재고, 고객재고 지수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Restocking 수요 커지며 경기 확장은 연장될 수 있다

2003년, 2010년과 올해 상반기
재고소진은 질적으로 유사.
차이는 올해 공급망 차질 심화로
재고소진의 골도 깊다는 것

2003년 사례와 2010년 사례는 올해 상반기 나타났던 재고 감소와 질적으로 유사하다. 1) 경기 침체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2) 보통 경기에 순행하는 재고투자가 초과수요 압력으로 경기에 역행하여 감소했다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와 차이는 현재의 쇼티지는 몇가지 요인(노동, 원자재, 공급망)으로 생산차질이 나타나고 있고, 이례적인 공급망 차질로 소매업 중심의 재고소진이 심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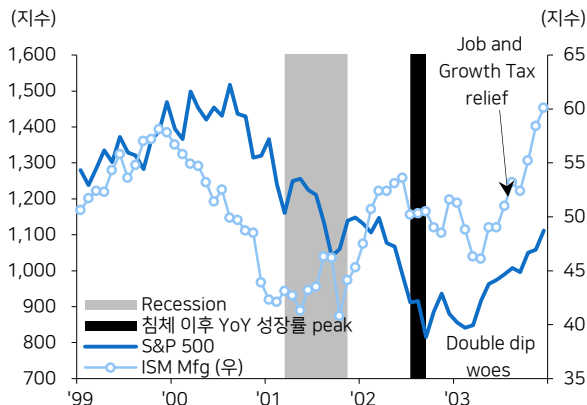
생산능력 확충 이후 restocking
본격화 예상. 재축적의 규모도
재고소진 골이 깊은 만큼 클 것

리세션으로 줄였던 재고를 다시 축적하는 것은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다. 주목할 부분은 전례 없이 빨랐던 경기회복 속도와 공급망 차질 문제가 맞물리면서 재고소진의 폭도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설비 및 노동력 확충, 공급망 문제가 해결된 이후 재고 restocking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데, 이후 나타나는 재축적의 규모는 재고 소진의 골이 깊은 만큼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투자 확대는 경기회복 가속화,
회복기간 연장시키는 동력 중
하나 될 수 있음. 주가에는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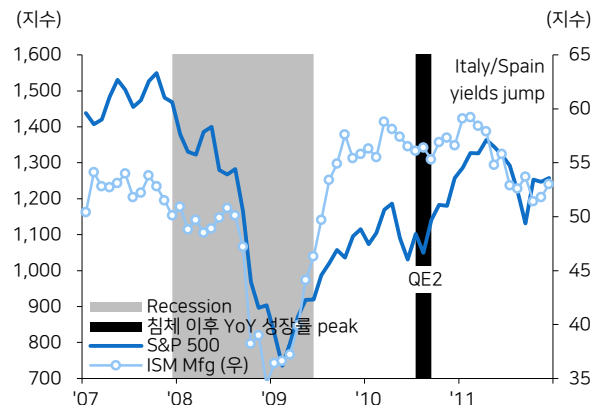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재고투자 확대는 미국 경기 회복을 가속화시키고 회복기간을 연장시키는 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재고투자 사이클과 다른 회복 요인들이 맞물리며 회복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 둔화 우려는 크지 않다는 생각이다. 주가의 경우 2003년과 2010년 이후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다른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면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림8 IT버블: 더블딥 우려 이후 정책대응 가세하며 상승



자료: Standard and Poors, US IS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전까지 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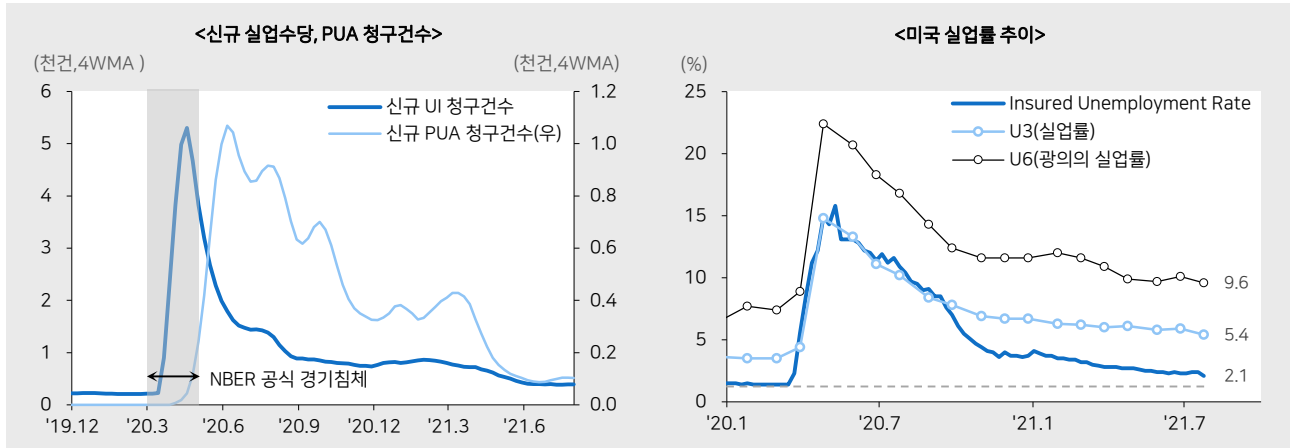


자료: Standard and Poors, US IS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이승훈 연구위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고용여건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유



자료: NBER,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매월 초 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시장에서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반면,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 UI) 청구건수는 같은 고용통계의 일종이지만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규 UI 청구건수는 CARES Act
실업급여 프로그램에 의해
변동하는 경향

그 이유는 UI 청구건수가 경기 여건 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CARES Act(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실업급여에 의해 변동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NBER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공식적으로 '20년 3~4월 두 달 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신규 UI 청구건수는 침체의 시작이 아닌, CARES Act가 시작된 '20년 3월 말에야 증가하기 시작했다.

CARES Act 신청 시 UI에서
탈락했다는 증명 필요

CARES Act 실업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UI에서 탈락했다는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UI 자격조건 미충족으로 신청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지원하며 신규 UI 청구건수는 큰 폭 상승했다. 이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CARES Act 실업보조 프로그램인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대상 보조 프로그램) 신규 청구건수가 신규 UI 청구건수에 한 달 정도 후행하여 증가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CARES Act 종료 후 노동시장
비효율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
고용지표 개선이 가속화될 것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직종별 미스매치로 인해 노동시장 효율성은 장기간 회복되지 못했다. 이번 COVID-19 위기도 비슷하다. 9월 초 CARES Act 실업보조 프로그램이 공식 종료되면, 정책효과가 소멸되며 신규 UI 청구건수는 자연스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시장 내의 비효율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타 고용지표의 개선 속도는 마찰적 실업 유인으로 오히려 더더질 가능성이 높다. 직업교육 등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칼럼의 재해석

김현 연구위원

컨테이너시장 붐, 언제까지 지속될까 (Tradewinds)

8월 3일, Schoeller Holdings는 20년 전 디자인으로 건조된 컨테이너선 2척을 현재 신조선가보다 비싸게 매각했다. TS lines, 익명의 유럽 선주가 14년된 2,700TEU급 소형 Sub-Panamax 컨테이너선을 포함 7,600만달러에 매입한 것이다. 이는 Schoeller가 최근 발주한 최신식 선박보다 적당 600만달러 비싼 가격이다.

이처럼 중고 Sub-Panamax이 비싸게 매각된 이유는 Spot 용선료가 여섯 자리 수로 오름에 기인한다. 매각된 Cape Mayor선은 2020년 Wan Hai Lines에 15,000달러/일에 용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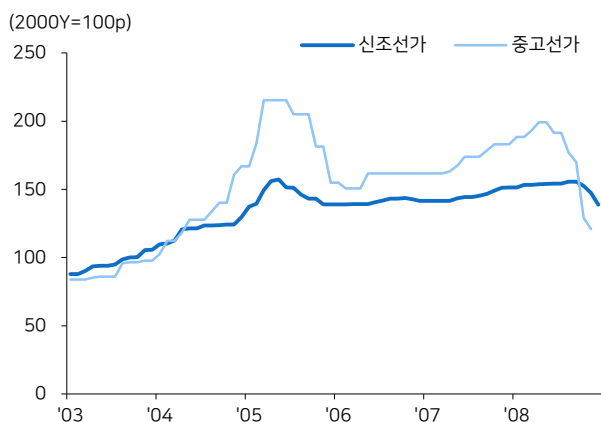
2021년 여름 가장 뜨거운 컨테이너 시장

‘컨’선 호황에 따른 글로벌 대표 선사들의 실적 전망 상황

전세계 해운시장에서 컨테이너선 호황이 지속되며 글로벌 대표 선사들은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다. 1등 선사인 A.P Moller-Maersk는 2021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을 기존 130~150억달러에서 180~195억달러로 최대 +50% 상향했고, 독일 Hapag-Lloyd는 92억달러에서 112억달러로 +22% 상향했다. 시황을 반영하는 지표인 운임의 폭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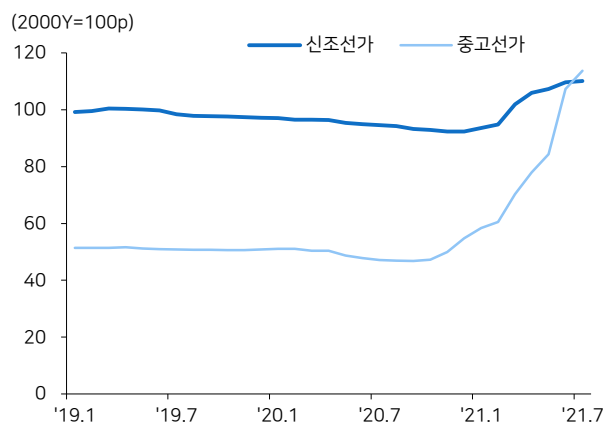
연초대비 신조선가 +19%, 중고선가 108% 상승하며, 8월초에는 컨테이너 중고선가가 신조선가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1년 폐선량은 0에 수렴한다. 7월 기준 350여척의 신규 컨테이너선이 발주되었지만, 2023, 2024년 인도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2003~2008년 Super-cycle 당시와 같은 수요 강세 지속의 개연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1 2003~2008년 Super-Cycle 당시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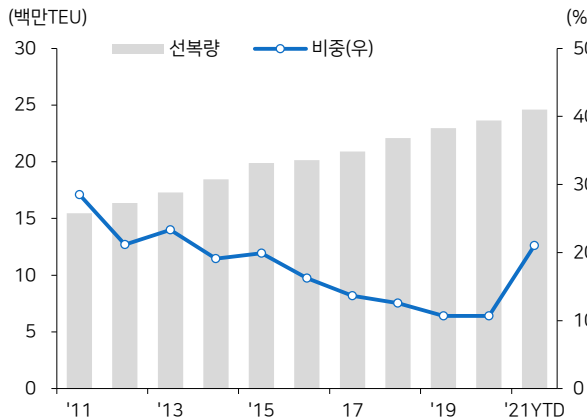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019~2021년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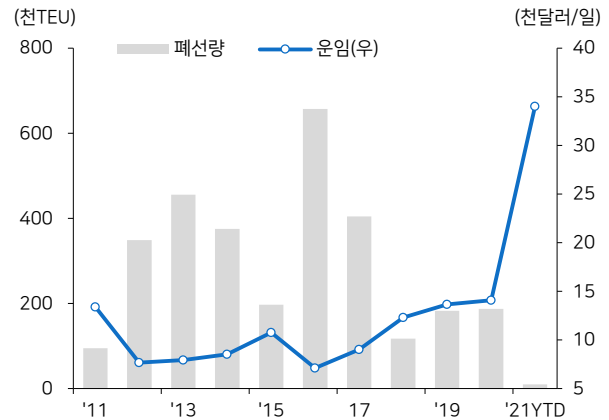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선복량, 선복량 대비 수주잔고 비중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컨테이너선 폐선량과 운임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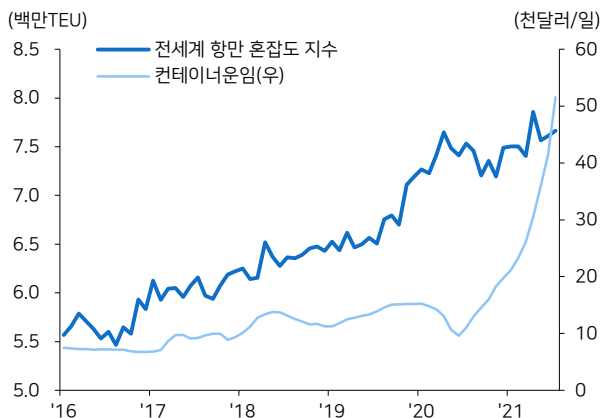
수요 증가가 아닌 비효율성으로 야기된 열풍

선박 정시율 최대 -50% 감소
물동량 증가는 미미

Maersk는 해운 수요의 반등, 공급망의 병목현상과 선박 부족의 예외적인 상황 지속을 실적 호조의 요인으로 꼽았다. 그런데 문제는 물동량 증가가 현 컨테이너 시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아니라 항만 체선현상, 기타 물류 장애 등 컨테이너 시장의 비효율성이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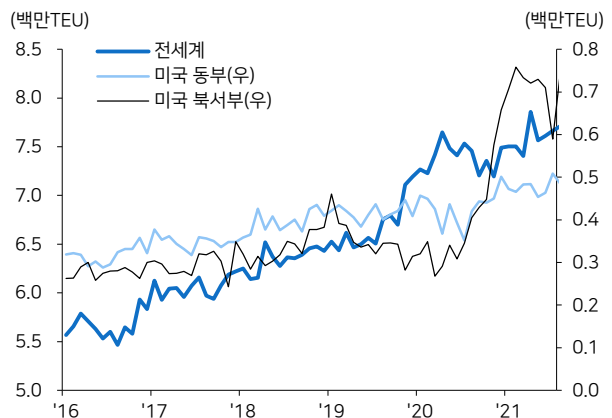
선박이 정해진 입·출항 스케줄을 얼마나 정확히 지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정시율이 높을수록 우수한 운항 서비스 품질을 의미하는데,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50~-42% 하락했다. 2021년 물동량이 COVID-19전인 2019년 대비 +4.9% 증가에 그친 사실을 감안하면, Global 공급사슬 내 심각한 장애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 전세계 항만 혼잡도 지수 및 컨테이너 운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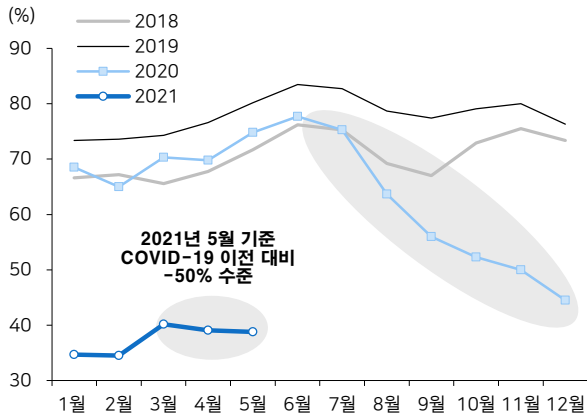
주: 2021년 8월 기준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전세계 및 미국 항만 혼잡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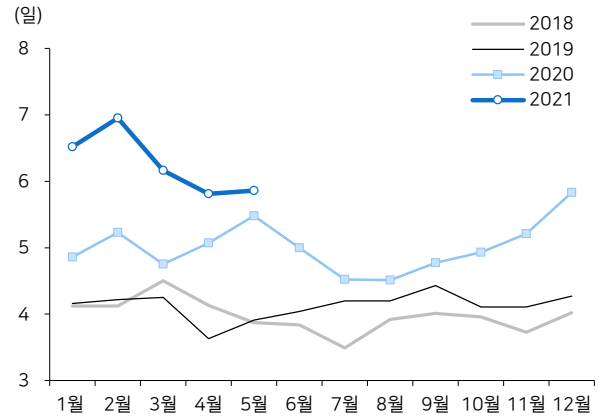
주: 2021년 8월 기준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2018-2021년 컨테이너 운항 정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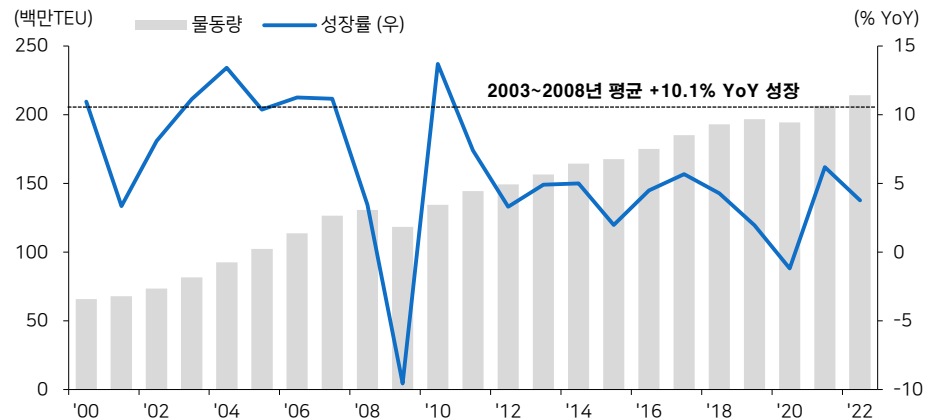
자료: Sea Intelligence, 코리아쉬핑가제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2018-2021년 선박 지연도착시간



자료: Sea Intelligence, 코리아쉬핑가제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2000년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 및 성장률



주: 2021년 7월 기준. 2021, 2022년은 전망치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항만 생산성 지수의 회복 양상
병목현상은 연내 해소 전망

JOC(Journal Of Commerce)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던 항만 생산성 지수가 인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개선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인도에서 가장 분주한 JNPT(Jawaharlal Nehru Port Trust)의 수출화물 평균 체류시간은 지난 5월 3.4일에서 6월 3.32일로 개선되었다. 인도 남부 Chennai 항만의 국제터미널(CITPL), Chennai 컨테이너 터미널(CCTPL)에서도 6월 체류시간이 5월 대비 각각 0.9, 0.4일씩 감소했다. 수입화물의 평균 체류시간도 CITPL은 1.8일, CCTPL은 0.4일 감소했다.

JOC는 화물의 수요는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선복량도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화주의 화물 운반계획과 운송업체 간 적하계획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Maersk는 2021년 EBITDA 전망치 상향(195억달러)과 동시에 3분기 실적은 2분기 51억달러보다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분기 실적 40억달러를 고려한다면, Maersk의 4분기 실적 둔화를 추측해볼 수 있다.

이처럼 수요측면에서의 발생이 아닌 항만 비효율성으로 초래된 병목현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3분기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통적인 물량 증가 계절성이 있다. 미국소매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은 9월까지 전년대비 수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절성을 고려했을 때 과거 Super Cycle대비 짧은 기간인 3분기말, 4분기 중 연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원문: *Schoeller sells 14-year-old containerships for more than newbuilding price (Tradewinds)*